

# 가업상속공제 규제완화 없던일로?... 현행 유지 가닥

〈연매출 3000억 미만〉

## 당정, 개편안 내일 최종 발표

중소·중견 사후관리기간 단축할 듯  
불경기·상속세율 고려한 체감 '제로'

가업상속공제 규제완화에 나선 당정(여당·정부)이 대상은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불경기와 높은 상속세율을 고려하면 체감은 사실상 '제로(0)'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1일 가업상속제 개편안을 최종 조율하고 발표한다. 현행 가업상속제는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 상속재산가액을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준다. 대신 상속인(상속받은 사람)은 10년 동안 ▲휴·폐업 금지 ▲업종 변경 금지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연합뉴스

기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 금지 ▲지분 100% 유지 ▲고용 100% 유지 등의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조건을 10년간 유지하지 못하면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돼 상속세·이자상당액 등을

부과해야 한다.

당정이 발표할 이번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 업종 변경 허용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지만,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다만 주요 요건 중 하나인 공제대상은 현행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제대상을 '5000만~7000만원 미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기획재정부는 대상 확대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규제는 일부 완화 했지만, 대상 규모는 유지하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경영계는 기업이 상속세 규제 완화를 어느 정도나 체감할지 사실상 미지수라는 평가다. 불경기 여파와 현행 상속세율이

너무 높아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파격적인 대책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실제 독일의 경우 상속공제 시 매출액과 지분보유 요건 자체가 없다. 또 피상속인이 5년만 경영해도 공제 가능하다. 독일은 지난 2014년 기업 가업상속공제 건수가 이미 2만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한국은 2012년 58곳, 2013년 70곳, 2014년 68곳, 2015년 67곳, 2016년 76곳, 2017년 75곳에 머물렀다.

당정의 방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권의 경우 공제대상을 연매출 최대 '1조원 미만'까지 대폭 확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 美 공대생 “靑 기업중 삼성전자가 최고”

유니버시티 '美 매력적인 고용주 발표'

미국 공대생들도 삼성전자를 매력적인 직장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컨설팅업체 유니버시티는 최근 '2019년 미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고용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 217개 대학에서 학생 5만3237명이 설문에 응했다. 경영학과와 공학, 컴퓨터공학과 자연과학 등 여러 학과에 재학 중이었다.

삼성전자는 공학 부문 30위에 올랐다. 지난해보다 6계단 올랐다. 아시아 기업 중에서는 가장 순위가 높았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100위 안에

들었다. 컴퓨터 공학 부문에서 닌텐도(9위)와 소니(18위)가 아시아 기업 중에서는 상위권이었다.

컴퓨터 공학 부문에서도 22위로 랭크됐다. 지난해 23위에서 한 단계 뛰어 올랐다. 자연 과학 전공자들 사이에서도 68위로 전년비 11계단 높은 순위를 달성했다.

상위권은 미국 기업이 독차지했다. 공학 전공 부문 1위는 일론 머스크 CEO가 만든 회사인 스페이스X, 2위도 테슬라였다. 이어 구글, 보잉, 나사, 록히드 마틴 등이 순위권에 있었다. 그 밖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BMW와 롤스로이스 등이 전공별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김재용 기자



SK동남아투자법인 박원철 대표(오른쪽 두번째)와 빈그룹 웬웨이 광 부회장 겸 CEO(다섯번째)가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SK

## LG·SK 등 대기업, 줄줄이 베트남행

» 1면 '美中분쟁에...'서 계속

대신 국내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인 동남아를 선택하면서 '고래싸움'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이다. LG전자가 휴대폰 생산 라인을 베트남으로 완전히 옮기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SK그룹은 베트남 민영 1~2위 민영그룹에 대규모 지분 투자를 결정했다.

삼성전자도 최근 중국 공장 규모를 대폭 줄인 후, 이를 베트남으로 옮길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동남아는 중국과 비교해 인건비가 저렴하고 정부 규제도 적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중국에 있던 미국 기업 생산 기지 중 절반 가까이 동남아로 자리를 옮겼다고 전해졌다. 특히 동남아는 중국을 대신할 시장으로도 각광받는다. 연평균 성장률이 베트남 7%, 태국 4% 등으로 가팔라서 소비력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50%를 넘지 않는 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이 가속화되면서 중국 시장 위험성도 크게 높아진 상태"라며 "마침 동남아가 중국보다 더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이면서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 구미형 일자리 '배터리 양극재' 공장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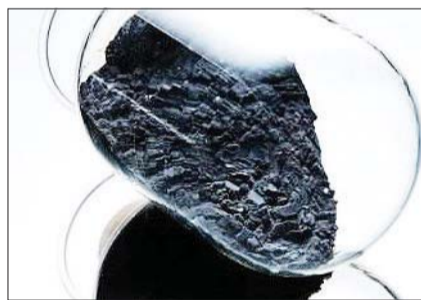
LG화학, 경북·구미시에 의견 전달  
조율거쳐 이르면 이달중 정식 협약

'구미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배터리 핵심소재인 양극재 생산공장 건설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연합뉴스는 LG화학이 지난 7일 경북도와 구미시로부터 '구미형 일자리 투자유치 제안서'를 전달받은 자리에서 양극재 공장을 짓겠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양극재는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 등을 결정짓는 핵심소재다.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과 함께 배터리의 4대 소재로 불린다. 특히 전체 생산원가의 약 40%에 달할 만큼 배터리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2016년 GS이엠의 양극재 사업을 인수하면서 생산기술 고도화와 전구체 제조기술력을 확보했으며, 지난해는 세계 1위 코발트 정련회사인 중국 화유 코발트와 전구체 및 양극재 생산법인을 설립하는 등 최근 양극재 기술 경쟁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배터리 양극재.

/연합뉴스

이번 투자 제안서를 전달한 자리에서 경북도와 구미시 관계자들은 배터리 분야의 투자 규모와 시기를 확정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세금 감면, 부지 제공 등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력 확보 방안과 이를 위한 채용 지원, 사택 등 공장 건설에 따른 복지 관련 계획 등도 구체적으로 내놨다고 한다.

이에 LG화학은 배터리 양극재 공장 건설이 이번 사업에 적절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투자 제안서를 일주일가량 검토한 뒤 1차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앞으로 몇 차례 조율 과정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에 정식으로 협약

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 추진에 관련한 한 관계자는 "총 투자 규모는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단기적으로는 배터리 공장보다 배터리 핵심소재 공장이 LG화학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더 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광주형 일자리 때와는 달리 구미는 고임금 문제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외국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던 공장 건설 사업을 국내 투자로 돌렸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도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양극재 등 핵심 소재 사업의 확장성이 크다"면서 "기업 투자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형 일자리 사업이 확정될 경우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办的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두 번째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로 추진된다. /정연우 기자 ywj964@

## 30대 그룹 5년간 일자리 6.2% 늘렸다

한경원, 기업집단포털 분석 결과  
2014년 127만명→작년 135만명

30대그룹이 종업원수를 5년간 6.2%나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비중을 높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 기준 자산 순위 상위 30대 그룹 종업원수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30대 그룹 종업원수는 2018년 135만4731명이었다. 2014년(127만5588명)보다 6.2% 많은 숫자다. 업종별로는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

원서비스업이 2만5127명으로 종업원수를 가장 많이 늘렸다. 그룹별 주력사업 고객지원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업종을 바꾸거나 인수·합병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금융및보험업은 농협과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 등 3개사가 30대 그룹에 새로 편입하면서 종업원수도 덩달아 늘었다.

이어서 도매 및 소매업이 1만9263명으로 종업원 증가폭이 높았다.

반면 제조업은 종업원수 감소율이 높은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제조업에서 3.1% 포인트 줄었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 33.2%, 1차 금속 제조업이 14% 감소했다. 조선과 철강 등 구조

조정 여파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30대 그룹은 제조업 종업원 비중을 전체에서 47.8%로 유지했다. 5년전보다 0.3% 포인트 늘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제조업 근로자 비중(19.7%) 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한경연은 30대 그룹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30대 그룹이 고객 서비스 강화, 보안 강화 등을 추진하면서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종업원수가 증가하였고, 금융및보험업은 30대 그룹에 3개 금융그룹이 신규로 진입하면서 종업원수가 늘었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